재개된 이란 핵협상 일단 파란불

이란 측 "농축 우라늄, 해외서 핵 연료봉 전환" … 외신들 "평화적 해결 물꼬"

'6개국+이란' 이스탄불서 회의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및 독일(P5+1)과 이란 정부 간 협상이 '긍정적인(positive)'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14일(현지시간) 전했다. 2003년 시작된 이란 핵협상은 당사국들 간 마찰로 최근 13개월간 중단됐다가 이날 재개됐다.

외신들에 따르면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란 핵협상과 관련, "협상 당사자 모두가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며 "아직까지 협상에서 큰 이견이 제기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협상 당사국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키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란 측은 자체적으로 농축한 우라늄을 해외에서 핵 연료봉으로 바꿔 발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dpa통신은 "이란의 제안은 3.5% 수준으로 농축된 우라늄을 러시아와 프랑스에서 핵 연료봉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하에 20% 이상 농축된 우라늄도 연료봉으로 바꾸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현재 의료용 원자로 가동에 필요하다며 2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 이란은 핵무기에 사용되는 9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회담에 대해 외신들은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이란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며 "하지만 낙관하기에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분석했다. 또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주간의 협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전략연구재단(FRS)의 브루노 테르타이 선임연구원은 "14일 협상을 큰 진전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며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 활동을 제약 없이 언제든지 사찰할 수 있을 경우에만 핵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협상은 다음 달 23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방 측은 차기 협상에서 이란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란 정부는 서방의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등은 "협상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기 전에는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국방수권법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른 대이란 제재조치는 6월 말 발효된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중국도 이번엔 찬성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가 시리아 휴전상태 감시단 파견을 결의했다. 사진은 리바오둥 중국 유엔대사가 결의안에 찬성하는 모습. [뉴욕 신화=연합뉴스]

감사하는 대한민국, 코이카가 함께 합니다.

코이카는 1991년 설립되어 우리정부의 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에 총 80여개의 병원 및 보건소,170여개의 학교,
40여개의 직업훈련원을 짓고, 농어촌개발, 전자정부, 발전소 건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WORLD FRIENDS KOREA
한국국제협력단
KOICA

2012년도 코이카 신입직원 모집

우리 정부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개발원조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할 우수한 인재를 찾습니다.

모집인원: 일반행정 인턴직 00명
※ 1년 내외 근무 후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연장

응시자격: 대한민국 국민인 자
※ 학력 및 연령제한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TOEIC 830점 (TEPS 674점, TOEFL/IBT 96점) 이상 취득자
※ 2010.4.1 이후 취득점수에 한함.
※ 보훈대상자, 장애우, KOICA 해외봉사단 경력자
(중도귀국자 제외)는 어학성적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함.

전형절차: 서류전형 ▶ 필기시험(영어 및 논술) ▶ 면접시험

지원방법: 인터넷으로만 접수 (www.koica.go.kr 접속 후 지원서 작성)

접수기간: 2012.4.16(월) ~ 4.27(금) 18:00 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전화 : 031-740-0153)

코이카 해외봉사단 활동수기집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보리, 시리아에 감시단 파견 결의

두 차례 막았던 중·러까지 찬성
선발대 30명 수일 내 보내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4일(현지시간) 시리아의 휴전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시리아에 군사감시단을 파견하는 내용의 결의 2042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지 13개월 만에 나왔다. 안보리는 지난해 10월과 올 2월 두 차례에 걸쳐 시리아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으나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월스트리트 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은 최대 30명의 비무장 군사감시단 선발대를 수일 내 파견하기로 했다. 결의는 또 정부군과 반군 양측에 모든 형태의 무장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시리아 정부에 유엔 및 아랍연맹(AL) 공동특사인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낸 6개 항의 중재안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난 특사의 중재안에는 도시와 마을로부터 군대와 중화기를 완전히 철수하고 유엔 감시하에 교전을 중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난 특사 대변인은 "약 250명의 옵서버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 결의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시리아 정부는 자국 내에서 폭력을 종식하고, 아난 특사의 중재안에 따라 도시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할 엄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시리아 내전으로 지금까지 모두 9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은 아난 특사의 중재안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공식 휴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국지적인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된 14일에도 알레포와 다마스쿠스 등에서 정부군이 반정부군 거점을 공격해 최소 6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SOHR)가 밝혔다.

박소영 기자 olive@joongang.co.kr

RPG에 뚫린 파키스탄 교도소 … 400명 탈옥

〈휴대용 로켓포〉

탈레반, 사건 직후 "우리가 공격"
무샤라프 암살 기도 가담자도 탈주

이슬람 무장세력이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의 교도소를 습격해 약 400명의 죄수가 달아났다. 사건 직후 알카에다와 연계된 파키스탄 탈레반 세력은 대변인을 통해 "우리가 교도소를 습격했다"고 밝혔다. 달아난 죄수들 중 20명은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파키스탄 대통령 암살사건에 가담한 아드난 라시드 등 '매우 위험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시드를 구하기 위해 이 작전이 벌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동틀 무렵 이슬람 무장괴한 100여 명이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인 파키스탄의 키베르 파크툰크와주(州)에 있는 반누 중앙교도소를 공격했다. 이들은 휴대용 로켓포(RPG)로 교도소 정문을 부수고 기관총을 쐈다.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경찰과 죄수 여러 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괴한들은 공격 후 달아났다.

파키스탄 탈레반 측은 "(교도소를 습격해) 1200명의 동료를 해방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키스탄 당국은 당시 교도소에 944명이 수감 중이었다고 밝혔다. AP통신 등은 "탈레반이 종종 자신들의 활동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7년 이후 파키스탄 탈레반은 수천 명의 파키스탄 관료와 시민들을 살해했다. 탈출한 죄수들은 곧 탈레반 무장세력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무장괴한들은 교도소 6개 동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경찰과 군인들은 공격 직후 교도소 중앙을 포위하고 탈옥수를 찾기 위해 탈출 가능한 경로 부근을 수색하고 있다.

구희령 기자 healing@joongang.co.kr